

# 도교의 생명주체환경윤리\*

김 태 용(Kim, Tae-yong)

(한양대학교 철학과 교수)

- I. 서 언
- II. 개체생명의 내재적 가치
- III. 인간의 생명주체성
- IV. 우주생명존중
- V. 결 어

※ 이 논문은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도교의 생명론과 환경」(제1회 선&도 국제학술대회, 2009년)과 「도교의 생명중심환경윤리」(제1회 동아시아인문학포럼 국제학술대회, 2009년)를 수정 보완하여 완성함.

### <논문 요약>

이 글은 도가·도교의 생명주체주의를 기초로 도교의 환경윤리를 고찰한다. 동아시아 전통사상 가운데 생명 개념을 가장 포괄적이고 심도 있게 발전시킨 것은 도교이다. 도교에서 모든 개체생명은 도성을 갖기 때문에 인간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도교에서 인간은 다른 개체생명과 달리 생명주체성을 갖는다. 도교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타율적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체적 능동적 존재이다. 자신의 요절과 장수는 하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자아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주체성은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인간이 다른 개체생명을 자신의 불로장생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우주생명의 내재적 가치 즉 각 개체생명간의 조화로움을 실현하는 주체라는 것이다. 그런데 도교는 우주생명의 조화로움을 상위가치로 본다. 따라서 개체생명으로 인간 가치 실현은 우주생명의 조화로운 질서 유지와 다른 개체생명의 가치 실현이 전제되어야 한다. 도교의 환경윤리는 생명중심주의가 아니다. 생명중심주의는 존재의 선과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동등하게 취급함으로써 인간이 해야 할 역할과 책임을 축소시킨다. 그러나 도교는 우주생명의 조화 실현에 대한 인간의 역할과 책임을 강조한다. 그러므로 도교의 환경윤리는 생명중심주의가 아니라 생명주체주의이다. 도교의 생명주체환경윤리는 인간이 다른 개체생명과 관계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할 것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생태환경회복의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

주제어: 도교, 환경윤리, 생명중심주의, 내재적 가치, 개체생명, 우주생명, 생명주체.

## I. 서 언

세계의 모든 종교는 각기 자신이 지향하는 이상세계가 있다. 중국의 자생종교인 도교 또한 마찬가지이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종교의 이상세계가 세상 밖에 있는 것과 달리 도교의 이상세계는 세상 밖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 안에도 있다. 도교는 우주를 크게 三界로 나눈다. 맨 위가 仙界 즉 신선이 사는 곳, 그 다음이 人界, 마지막이 鬼界 즉 죽은 사람이 들어가는 곳이다. 여기서 인계는 天仙과 地仙들이 사는 세계이다. 인간이 도를 닦으면 천선 즉 하늘에 오르는 선인이 될 수 있고 조금 덜 닦아도 불멸성을 갖게 되었을 때는 지선이 되어 명산에서 노닌다. 천선이 되면 북두칠성과 별들로 올라가고, 지선들은 명산에 洞天이라고 부르는 아름다운 동굴에 산다. 동천 즉 洞天福地는 명산 깊은 곳에 실재한다고 믿었던 신선들이 사는 별천지를 가리킨다. 도교에서 동천과 복지를 구분해서 말하는데 동천은 계곡이나 동굴 안의 별천지를, 복지는 재해가 미치지 않는 비옥한 땅을 의미한다. 개념적으로 복지 속에 동천이 포괄될 수 있다. 사마승정은 도교의 성지를 10大洞天, 36小洞天, 72福地로 나누고, 대동천은上天이 직접 파견한 신선이 다스리는 곳, 소동천은 지상의 높은 신선이 다스리는 곳, 복지는 상제가 真人에게 명하여 다스리도록 한 곳이라고 한다.<sup>1)</sup> 이처럼 동천복지는 세상 속에 존재하는 修道安養의 이상세계이며 도교 이상 중 眞仙이 관리하는 太平至樂의 人間仙境이다.

이러한 동천복지는 빼어난 자연경관을 갖고 있을 뿐 아니라 무성한 수목과 화초 및 맑은 샘물 그리고 각종 금수와 같은 야생동물이 번식하는 낙원이다. 생태환경의 시각에서 보면 도교의 동천복지는 완벽에 가까운 생태구조를 갖추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동천복지에 관한 문헌에서 언급

1) 도교의 신선 세계에 관해 김승혜 등의 『도교와 그리스도교』(바오르딸, 2003년, 257-261쪽)과 정제서의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푸른숲, 2002년, 242-249쪽)을 참조.

하는 자연환경은 예외 없이 꽃 향과 녹엽이 넘쳐나고 샘물이 감미롭고 기후가 온화하고 재난과 병이 없다. 이는 지극히 자연적이면서도 이상적인 생존환경이다. 그리고 도교도들의 수행공간인 宮觀도 세상에 멀리 떨어져 있고 淸靜安逸하고 수렵이 율창한 명산승경에 있다. 궁관은 자연환경만 좋을 뿐 아니라 동천복지적 자연형세를 그 배치의 기초로 한다. 궁관은 최대한 주변 자연형세에 따라 구조물을 배치하고 그 곳의 자연재료를 사용하여 건립된다. 따라서 궁관건축과 자연산세는 조화롭고 전체 배치는 자연친화적이다.<sup>2)</sup> 또한 궁관건축뿐 아니라 궁관생활도 자연친화적이다. 수행자들은 곤충, 초목, 금수를 사랑하고 산천하류를 아끼고 어떠한 생명도 무고하게 상해해서는 안 된다. 특히 궁관에서는 자연자원의 절약을 전제로 모든 활동에 중사해야 한다.<sup>3)</sup>

이처럼 동천복지로 대표되는 도교의 생태환경사상은 인간과 자연생태계가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는 이상적 모델을 제시한다. 그러면 도교가 인간과 자연생태계의 공존을 주창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이는 도교의 생명중심주의에 그 뿌리가 있다. 과학기술의 발달은 인간에게 막대한 물질적 풍요를 가져다주었지만, 그 과정에서 진행된 자연생태계의 오염과 파괴는 인간 생존마저도 위협하고 있다. 생태계의 오염과 환경파괴를 가져온 과학문명과 전세계적 산업화의 이면에는 근대 서구의 기계론적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중심주의가 자리 잡고 있다. 기계론적 세계관은 자연과 인간을 분리시키고 자연을 객체화하고 자연물에 어떠한 생명권도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생명체에 기술적 조작을 정당화하고 자연의 파괴와 살생에 대해 어떤 윤리적 의식도 가지지 않게 하는 기술지향적, 탈생명윤리적 태도의 근거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세계관에 입각한 인간중심주의는 자연의 신비로움을 부인하고 인간이 세계의 중심이며, 인간이 마음대로 자연을 조종할 수 있고, 처리할 수 있으며, 모든 것은 인간을 위해서 존재한다

2) 毛麗姬, 「道敎生命觀與自然環境」,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2008/8제 204기, 99-100쪽.

3) 樊光春, 「宮觀生態學」, 『宗教學研究』, 2005년제3기, 32쪽.

고 본다.

생명중심주의는 이러한 인간중심주의를 극복할 대안으로 제시되었다. 생명중심윤리는 모든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고 보는 이론이다. 폴 테일러가 『자연에 대한 존중』에서 제시한 이론은 이러한 생명중심윤리의 가장 발전되고, 철학적으로 정교한 형태라고 볼 수 있다.<sup>4)</sup> 그는 생명체가 고유의 선을 갖는다고 말하는 것이 의미 있다고 주장한다. 왜냐하면 생명체는 ‘목적론적 삶의 중심’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어떤 존재가 고유의 선을 갖는다는 사실이 그 자체로 그 존재에게 도덕적 지위를 부여하지 않는다. 모든 생명체가 도덕적 지위를 가지며, 따라서 우리는 그들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는 규범적 주장을 테일러는 내재적 가치 개념을 통해 설명한다. 내재적 가치는 인간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그 자체로 갖는 가치를 의미한다. 가치에 대한 모든 판단은 인간의 판단에 의존하며 따라서 목적적 가치와 내재적 가치의 구분은 불가능하다.<sup>5)</sup> 그런데 인간은 그 자

---

4) 생명중심주의는 슈바이처의 생명경외사상으로부터 시작되었다. 슈바이처는 모든 생명은 신성하며, ‘살려는 의지(will-to-live)’를 가진 내재적으로 가치있는 존재로 보았다. 생명 속에 존재하는 내재적 가치의 자각은 인간에게 생명에 의 경외감을 일으키는 강한 동기가 된다. 슈바이처는 생명에 대한 경외의 방법을 다음의 세 가지로 제시한다. 첫째 생명을 유지, 촉진하는 것은 선이고, 반대로 생명을 죽이거나 해치는 것은 악이다. 따라서 생명을 해치거나 죽이는 것이 불가피하다 하더라도 그 불가피성이나 필연성이 면책사유가 될 수 없다. 둘째 한 생명의 존재는 다른 생명의 희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생명에 대한 훼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더 더욱 생명을 경솔하게 혹은 무의미하게 죽이거나 해치는 것을 피해야 한다. 셋째 다른 생명을 해치는 것이 필연적이며 불가피하더라도 그에 대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 이러한 책임에 대한 자각이 바로 슈바이처 윤리학의 핵심이다.(이종원, 「환경윤리에 대한 대안적 접근-생명중심주의에서 생명주권주의에로」, 『철학탐구』 제19집, 2006년, 88-91쪽)

5) 어떤 대상이 목적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은 그 대상이 그 자체로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하지, 다른 용도를 위해 가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가 가치 있다고 평가하는 것들이 다 도구적 가치만을 갖는 것은 아니다. 어떤 것들은 상징적, 미학적, 문화적 중요성으로 말미암아 가치 있다고 평가된다. 그것은 그것 자체로, 또는 그것이 의미하는 바, 또는 그것이 상징하는

체로 내재적 가치를 부여할 수 있다는 주장이 있다. 가령, 인격이나 인간의 존엄성 같은 개념들이다. 테일러는 인간에게만 적용되는 인격 개념을 야생동물과 식물들에게도 확장하여 적용될 수 있다고 보았다. 따라서 어떤 존재가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고 주장하는 것은 그 존재가 도덕적 고려를 받을 만하며, 도덕 행위자는 그 존재에 대한 의무를 갖고 있다는 규범적 주장을 하는 것이 된다. 즉 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한다는 것은 ‘자연존중’을 ‘궁극적인 도덕 태도’로 채택하는 것이며, 자연환경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체가 내재적 가치를 가진다는 규범적 주장은 테일러의 ‘생명중심적 관점’이라고 부른 것에 의해 설명되고 정당화된다. 생명중심적 관점은 다음 네 가지 핵심 신념으로 구성되어 있다. 첫째,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똑같은 이유에서 지구공동체의 구성원이다. 둘째, 인간을 포함해 모든 종은 상호의존 체계의 일부이다. 셋째, 모든 생명체는 자기 고유의 방식으로 자기 고유의 선을 추구한다. 넷째, 인간이 다른 생명체보다 내재적으로 더 우월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모든 살아있는 존재들은 동등하게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기에 어떤 종도 다른 종들보다 “높거나” “낮은” 종으로 간주될 수 없다. 인간도 자연의 일부이며, 동등하게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을 가진 존재로

---

바에 의해 가치 있다고 평가된다. 반면 도구적 가치는 다른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갖는 가치이다. 어떤 대상이 도구적 가치를 가진다는 것은 그것이 그 자체로 가치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무엇인가를 얻는 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가치 있다는 것이다. 만일 그것이 쓸모없거나, 더 효과적인 것으로 대체될 경우, 그것의 용도는 폐기된다. 그런데 목적적 가치에 대한 호소는 종종 회의주의에 직면한다. 우리는 목적적 가치의 의미를 표현해 주는 적절한 용어를 갖고 있지 않다. 그래서 그러한 가치는 어차피 주관적인 것이고, 따라서 개인의 의견에 불과하며, “미는 그것을 보는 사람에게 달려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그래서 도구적 가치와 목적적 가치가 충돌할 때, 도구적 가치는 측정 가능한 반면, 목적적 가치는 표현되기 힘든 무형의 특징을 지니기 때문에 도구적 가치가 너무 쉽게 승리하곤 한다. 이에 슈바이처와 테일러 등은 생명은 그 자체 목적적 가치를 지니며, 따라서 도덕적 고려를 받을 자격이 있다는 견해를 제시한다.(J.R. 테저르팅, 김병식 옮김, 『환경윤리』, 자작나무, 1999년, 217-223쪽)

서, 존재의 선을 각자의 방식으로 추구하는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테일러의 생명중심주의는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불간섭’을 강조하는데, 이러한 테일러의 관점은 인간을 자연의 밖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는 것으로 인간을 자연과 분리하는 것이다. 또한 자연에서 발생한 것이라고 다 좋을 수가 있을까? 자연적으로 발생한 환경파괴도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했다는 이유만으로 허용되어야 하는가? 인간은 또한 다른 존재와 마찬가지로 자연과정의 일부이다. 그렇다면 환경변화가 인간에 의해 초래되었다고, 그것에 특별히 윤리적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sup>6)</sup>

최근 대두되고 있는 환경철학은 공리주의나 의무론을 대치하는 규칙이나 원리를 제안하는 것이 아니다. 대신 그것은 행위규칙이 아니라 도덕적 성품에 관심을 가질 것을, 즉 철학적 관점의 근본적 변혁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환경에 대해 달리 생각할 것을 촉구할 뿐만 아니라, 보다 중요하게는 우리의 자아에 대해 달리 생각할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sup>7)</sup> 이에 이 글은 동양의 생명중심주의를 대표하는 도가·도교의 세계관에 대한 분석을 통해 환경윤리원리를 제안하기 보다는 전 인류와 생태계가 당면한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하나의 바람직한 환경생태모델을 모색하는데 목적을 둔다.

## II. 개체생명의 내재적 가치

도교의 종교적 최종목적은 개체생명의 영원함이다. 인간은 죽음이라는 유한성을 돌파해 영원한 ‘도’ 즉 무한성과 하나 되는 경계에 도달해서만이 개체생명의 영원함을 실현할 수 있다. 그런데 형상이 없는 ‘도’는 현상

6) 테일러의 생명중심윤리에 관한 내용은 J.R. 데자르텐의 『환경윤리』(김명식 옮김, 자작나무, 1999년, 230-245쪽)와 이종원의 「환경윤리에 대한 대안적 접근-생명중심주의에서 생명주권주의에로」(『철학탐구』 제19집, 2006년, 92-100쪽)를 참조.

7) J.R. 데자르텐, 김명식 옮김, 『환경윤리』, 자작나무, 1999년, 229쪽.

세계에서 스스로 그 무한성을 드러낼 수 없고 개체생명을 통해서만이 그 무한성을 드러낼 수 있다. 그러므로 개체생명은 ‘도’와 하나가 되려고 노력하고 ‘도’는 개체생명에 머무르려 한다.<sup>8)</sup>

도는 눈으로 볼 수가 없으므로 생명을 통하여 그것을 밝힌다. 생명은 영원하지 못하므로 도를 이용하여 그것을 지킨다. 만약 생명이 사라지면 도가 허물어지고, 도가 허물어지면 생명이 사라진다. 생명과 도가 서로 합하여 하나가 되면 오래도록 생명을 영위하여 죽음에 이르지 않는다.<sup>9)</sup>

인간이 항상 도를 상실하는 것이지, 도가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다. 인간이 언제나 생명을 떠나는 것이지 생명이 인간을 떠나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기르는 자는 삼가 도를 잃지 말며, 도를 실천하는 자는 삼가 몸을 잃지 말라. 도는 생명과 더불어 서로를 지키고, 생명은 도와 더불어 서로를 보호하게 하라.<sup>10)</sup>

이처럼 개체생명은 우주생명인 ‘도’의 직접적 표현양태이다. 즉 개체생명은 ‘도’의 別體이다. 그러면 ‘도’의 별체로서 개체생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물을 지칭하는 것인가? 장자는 도는 모든 사물들 속에 편재해 있다고 말하고 그 구체적 사물로 도루래, 개미, 가라지, 돌피, 기왓장, 똥, 오줌 등을 들고 있다. 이것으로 보면 곤충, 식물, 무생물, 무기물 등 모든 사물이 ‘도’의 별체이다. 그러므로 장자는 “형체 있는 것들은 도가 아니었으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며, 생명 있는 것들은 덕이 아니었으면 드러나지 못했을 것이다(形非道不生, 生非德不明. 『莊子·天地』)”라고 하였다. 도교는 장자의 ‘도’의 ‘無所不在’관념 즉 ‘德’관념<sup>11)</sup>을 발전시켜 ‘道性’관념을 주

8) 拙稿, 「도교의 생명윤리」, 『도교문화연구』 제28집, 2008년 4월, 143쪽.

9) 『太上老君內觀經』: “道不可見, 因生而明之. 生不可常, 用道以守之. 若生亡則道廢, 道廢則生亡. 生道合一, 則長生不死.”

10) 『養性延命錄』: “人常失道, 非道失人. 人常去生, 非生去人. 故養生者慎勿失道, 爲道者慎勿失身. 使道與生相守, 生與道相保.”

11) 장자는 “천지가 통하는 것은 덕이요, 만물에 유행하는 것은 도이다(通於天地者, 德也, 行於萬物者, 道也. 『莊子·天地』)”라고 한다. 도가 만물의 공통된 근



창한다. ‘도성’이란 ‘도’에서 稟賦한 혹은 ‘도’와 동일한 衆生의 불변의 본성으로 모든 생명체는 ‘도성’을 갖는다(“一切衆生, 悉有道性”).

도성은 淸虛自然을 본체로 하고 일체 심식(心識, 의식)이 있는 것은 각기 도성을 갖는다.<sup>12)</sup>

무릇 일체 심식이 있는 것은 모두 도성이 있다는 것을 무엇으로 밝힐 수 있는가? 무릇 심식이 있는 것이 심식이 없는 것과 다른 이유는 그 심식의 明暗(의식활동)으로 취사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물과 돌이 비록 본성이 있으나 취사선택을 할 수 없는 것과 다르다.<sup>13)</sup>

여기서 도교는 인간 및 의식 활동을 하는 동물에는 ‘도성’이 있지만 초목, 수석 등 식물이나 무생물에는 ‘도성’이 없다고 한다. 이러한 관점은 식물, 무생물 심지어 무기물까지 포괄하는 장자의 ‘덕’관념과는 차이가 있다. 그러면 식물, 무생물 및 무기물은 ‘도’와 무관한 존재인가? 또한 그들이 갖고 있는 본성은 무엇인가? 심식이 없는 사물도 ‘性’을 갖고 있다. 그런데 ‘도성’은 本識淸虛에서 말하는 것이고, ‘성’ 즉 ‘物性’은 受命形質에서 말하는 것이다.<sup>14)</sup> 즉 ‘도’가 심식이 없는 사물에도 ‘성’을 품부하지만 의식 활동능력은 품부해 주지 않는다. 그러므로 인간과 동물은 의식 활동이 가능하지만 초목, 수석 등과 같이 의식이 없는 사물은 단지 물성만 있지 도성이 없다. 나아가 도교는 심식의 동일성에 기초하여 인간과 동물은 仁義禮智信과 같은 도덕본성을 공유한다고 보고 인간과 동물의 관계도 인간과 인간의 관계와 마찬가지로 윤리도덕규범을 준수하고 서로 침해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기까지 한다.<sup>15)</sup> “一切衆生, 悉有道性” 혹은 “一切含

원이라면 덕은 개체에 내재해 있는 도이다.

12) 『道教義樞』: “論道性以淸虛自然爲體, 一切含識, 各有其分.”

13) 위의 책: “夫一切含識, 皆有取捨, 非如水石, 雖有本性, 以不能取捨者也.”

14) 위의 책: “今論道性, 則但就本識淸虛以爲言. 若談物性, 則兼就受命形質以爲語也.”

15) 『化書』: “大禽獸之於人也何異. 有巢穴之居, 有夫婦之配, 有父子之性, 有生死

識, 皆有道性”적 생명관은 후에 “一切有形, 皆含道性” 즉 심식이 있는 중생이나 심식이 없는 초목, 수석 모두 도성을 갖고 있다는 생명관으로 변화한다. 왜냐하면 도교는 ‘도’에서 천지만물 모두가 생성된다고 주장하는데 초목, 수석이 물성만 있고 도성이 없다고 한다면 스스로 논리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도교는 일체 형상을 가진 사물은 모두 도성을 갖는다고 말하고 심식을 갖는 인간, 동물과 심식을 갖지 않는 초목, 수석과의 차이는 단지 수행을 통해 ‘도’를 깨달을 수 있는가의 여부에 있다고 한다.<sup>16)</sup> 그러므로 도교는 동물과 식물을 포함한 개체생명의 존재가치를 존중할 것을 인간에게 요구한다.

만물을 사랑하다. 「積善」<sup>17)</sup>

소소한 벌레(곤충)와 무지한 초목이라도 상하게 하지 않다. 「積善」<sup>18)</sup>

나는 새를 쪼고, 달리는 짐승을 쫓으며, 굴에 있는 짐승을 내쫓고, 깃 들인 새를 놀라게 하고, 굴을 막고 길을 뒤엎으며, 태를 상하게 하고, 알을 깨뜨리다. 「諸惡上」<sup>19)</sup>

무고히 나무순을 자르다. 「諸惡上」<sup>20)</sup>

부단히 중생을 괴롭히다. 「諸惡上」<sup>21)</sup>

약을 써서 나무를 죽이다. 「諸惡下」<sup>22)</sup>

之情。鳥反哺，仁也。隼憫胎，義也。蜂有君，禮也。羊跪乳，智也。雉不再接，信也。……萬物之中，五常百行無所不有也。……且夫焚其巢穴，非仁也。奪其親愛，非義也。以斯爲享，非禮也。教民殘暴，非智也。使萬物懷疑，非信也。”

16) 『道教義樞』, “一切含識乃至畜生果木石者, 皆有道性.”, “道性不色不心, 而色而心. 而心故研習可成, 而色故瓦礫皆在.”

17) 『太上感應篇』: “慈心於物.”

18) 위의 책: “昆蟲草木猶不可傷.”

19) 위의 책: “射飛逐走, 發螫驚棲, 填穴復巢, 傷胎破卵.”

20) 위의 책: “無故剪裁.”

21) 위의 책: “勞擾衆生.”

독약을 연못, 강과 바다에 뿌려서는 안 된다.<sup>23)</sup>

함부로 땅을 파고 산천을 훼손해서는 안 된다.<sup>24)</sup>

못을 메마르게 하면 안 된다.<sup>25)</sup>

그러면 일체 형상이 있는 사물이 모두 도성을 갖는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만물이 타자의 간섭이나 지배를 받지 않고 스스로 생겨서 스스로 변화(自生自化)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만물이 자생자화하는 현상을 곽상은 ‘獨化’라는 말로 표현한다. 그에 따르면 만물은 각각 독자적 실체로서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고 그 자체로서 그의 존재를 성립시키고 변화해간다. 그런데 자생자화하고 대립전화하고 반복순환하면서 끊임없이 운동하고 변화하지만 도성을 갖는 만물은 조화와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장자는 이러한 평형 유지력을 조화, 天均, 天和 등의 개념으로 표현하였다. 즉 우주에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사물들이 존재하고 또한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방식으로 생성 변화하지만, 결국은 평형과 조화를 이룬다. 이처럼 도교에서 모든 개체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각 개체의 내재적 가치는 타자에 의해 침해받지 않으며, 또한 내재적 가치들이 서로 충돌하지 않고 조화를 이룰 수 있다.

### Ⅲ. 인간의 생명주체성

개체 생명은 모두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 그런데 도교는 인간을 포함한 천지만물이 모두 ‘도성’을 갖지만 인간이 질적으로 다른 사물보다 우월한 지위를 차지하고 가장 존귀한 존재라고 한다.

22) 위의 책: “用藥殺樹.”

23) 『老君說一百八十戒』: “不得以毒藥投淵池江海中.”

24) 위의 책: “不得妄鑿地毀山川.”

25) 위의 책: “不得竭水澤.”

인간은 중화이니, 못 사물의 어른이다. 높고도 귀하며, 천지와 서로 비슷하다.<sup>26)</sup>

인간은 사물 가운데 가장 높은 자이고, 하늘이 자식으로 삼는 바이다.<sup>27)</sup>

그러면 인간이 다른 사물보다 우월하고 존귀한 이유는 무엇인가? 노자는 “도는 크고, 하늘도 크고, 인간도 크다. 우주 사이에는 네 가지 큰 것이 있는데, 인간이 그 중에 하나이다. 인간은 땅을 본받고, 땅은 하늘을 본받고, 하늘은 도를 본받으며, 도는 자연을 본받는다.”(『道德經』 제25장)고 한다. 여기서 자연은 천지만물을 존재하고 움직이게 하는 도의 본질적인 성향 즉 자연의 질서이다. 인간은 천지와 함께 우주 사이에서 큰 것이다. 인간이 크다고 할 수 있는 이유는 다른 사물과 달리 도 즉 자연의 질서를 주체적으로 본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도교는 이러한 인간의 주체 의식을 ‘我命在我[나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 있다]’라는 생명주체설로 발전시킨다.

나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 있지 천지에 속해 있지 않다.<sup>28)</sup>

천지는 사사로움이 없다. 사물자신에게 맡기어 스스로 변화한다. 수명의 길고 짧음이 어찌 천지가 사역하는 것이겠는가! 단지 인간의 행위에서 말미암을 뿐이다.<sup>29)</sup>

나의 생명은 나에게 있는 것이지 하늘에 달려 있지 않다. 그러나 어리석은 자들은 이 도가 생명의 요체임을 깨달을 수 없다.<sup>30)</sup>

형체적으로 어리석거나 총명하게 태어나는 것은 하늘에 속한 것이지만 강하거나 약한 것 또는 장수하거나 요절하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있는 일이다. 하늘의 도는 자연의 일이고, 인간의 도는 자기 자신의 일이다.<sup>31)</sup>

26) 『太平經』: “人者, 乃中和凡物之長也, 而尊且貴, 與天地相似.”

27) 위의 책: “人者, 最物之尊者, 天之所子也.”

28) 『西昇經』: “我命在我, 不屬天地.”

29) 『西昇經集注』: “天地無私, 任物自化. 壽之長短, 豈使之哉, 但由人行.”

30) 『養性延命錄』: “我命在我不在天. 但愚人不能知此道爲生命之要.”

31) 위의 책: “夫形生愚智, 天也, 強弱壽夭, 人也. 天道自然, 人道自己.”

나의 생명은 나에게 달려 있지 하늘에게 달려있지 않으므로 還丹成金으로 억만년을 누릴 수 있다.<sup>32)</sup>

먼저 ‘我命在我不在天’은 ‘物我相分’의식을 표현한다. ‘物我相分’은 자아와 외재사물을 구분하여 자아를 중심으로 주객관계를 형성하는 의식이다. 도교는 자아를 주체로 놓고 자아와 하늘의 경계를 나누며 그 생명의 주체를 자아로 귀속한다. 둘째, 자주의식을 표현한다. 자주의식은 주체역량의 표현이며 주체지위의 확립을 뜻한다. 도교는 인간과 그 생명에 대한 천지의 제어에서 벗어나 인간의 역량과 지위를 고양한다. 셋째, 이성적 자유의식을 표현한다. 인간이 자주능력을 갖고 있다는 것이 곧 욕구하는 것을 멋대로 추구한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도교는 인간이 자신의 생명을 제어하려면 반드시 객관규율을 중시할 것을 강조한다. 인간은 생명의 규율을 파악했을 때만 천지가 아닌 스스로가 자신의 생명을 주재할 수 있다. 넷째, 능동의식을 표현한다. 인간은 주동적으로 자신의 생명과 운명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자유의지를 갖고 자주적 활동을 할 수 있는 인간이 행동하지 않는다면 가능적 주체일 뿐 현실적 주체는 아니다. 도교는 인간이 적극적으로 주관능동성을 발휘할 것을 강조한다.<sup>33)</sup> 이처럼 인간은 다른 개체생명과 함께 ‘도성’을 갖고 있지만, ‘심식’이 있는 인간은 생명의 주체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다른 개체생명이 ‘도성’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자신의 생명을 맡기는데 반해서 인간은 자연의 질서를 파악하고 이용해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주재할 수 있다.

자신의 생명을 스스로 주재하는 도교의 양생법 중 外丹 즉 단약을 복용함으로써 장생을 추구하는 방법이 있다. 외단은 服食에서 발전되어 이루어진 것이다. 복식은 전국시대에 시작되었으며, 行氣, 방중과 더불어 당시의 3대 선도학파에 속하였다. 초기에는 대부분 약초를 복용하였고, 한 무제 때에 이르러 仙丹을 만드는 사람이 출현하였다. 『열선전』에 열거되

32) 위의 책: “我命在我不在天, 還丹成金億萬年.”

33) 拙稿, 「도교의 생명윤리」, 『도교문화연구』 제28집, 2008년 4월, 141-142쪽.

는 신선이 71명인데, 그 대부분이 초목을 복용하였다. 도교는 이와 같은 전통을 계승하였는데, 仙藥을 복용하는 기풍은 위진 시대에 유행하였다. 갈홍은 『포박자내편』 「선약」에서 복식만을 전문적으로 다루어, 수백 종의 복식 약재를 나열하였다. 이른바 ‘외단’은 납과 수은 그리고 기타 약물을 배합한 다음에, 특수 제작한 솥과 화로 속에 집어넣고 제련하여 만든 화합물이다. 이 화합물을 ‘金丹’이라 부르는데 이것을 얻으면 장수하고 신선이 된다고 생각하였다.<sup>34)</sup>

무릇 오곡도 사람을 살릴 수 있으니, 사람이 곡식을 먹으면 살고 굶으면 죽는다. 허물며 최상의 신비한 약은 오곡보다 만 배나 더 도움 되지 않겠는가? 무릇 금단은 오랫동안 제련하면 할수록 변화가 더욱 오묘해진다. 황금은 불에 넣어 백 번을 태워도 없어지지 않고, 땅에 묻더라도 하늘이 끝날 때까지 썩지 않는다. 이 두 가지를 먹으면 사람의 신체를 단련하기 때문에 늙지도 죽지도 않게 된다. 이것은 외부 사물의 힘을 빌어서 자신을 강하게 하는 것이다.<sup>35)</sup>

외단술은 兩漢 시대에 처음 나타났으며 도교 수련의 주요 방술로서 천 년 이상 성행하였다. 외단의 관점에 보면 도교에서 개체생명이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기 보다는 도구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말하는 것이 낫다. 도구적 가치는 자연환경이나 다른 어떤 것을 인간의 이익을 위한 수단으로서 가치를 갖는다고 볼 때 형성된다. 도구적 가치의 척도는 유용성에 있다. 도구적 가치는 외재적이며, 다른 가치 있는 것을 획득하는데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갖는 가치라고 할 수 있다. 자연의 도구적 가치의 강조는 자연을 인간의 이익과 필요를 위한 수단으로 주장하게 된다.<sup>36)</sup> 도교의 외

34) 이원국, 김낙필 외 옮김, 『내단: 심신수련의 역사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년, 158-168쪽.

35) 『抱朴子內篇』 「金丹」: “夫五穀猶能活人, 人得之則生, 絕之則死, 又況於上品之神藥, 其益人豈不萬倍於五穀也. 夫金丹之爲物, 燒之愈久, 變化愈妙. 黃金入火, 百鍊不消, 埋之, 畢天不朽. 服此二物, 鍊人身體, 故能令人不老不死. 此蓋假求於外物以自堅固.”

36) 이종원, 「환경윤리에 대한 대안적 접근-생명중심주의에서 생명주권주의에로

단은 초목과 광물을 인간의 불로장생을 위한 수단으로 간주한다. 말하자면 인간의 생명주체성을 강조하는 도교에서 자연은 인간의 이익과 필요를 위한 도구적 가치를 갖고 있을 뿐이다.

#### IV. 우주생명존중

도교에서 자연생태계의 개체생명은 ‘도’와의 관계에서는 내재적 가치를 갖지만 ‘인간’과의 관계에서는 단지 도구적 가치만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 왜 도교는 천지만물을 한편으로 내재적 가치를 갖는 개체생명으로, 다른 한편으로 도구적 가치를 갖는 자연으로 간주하는가? 도교의 세계관에서 인간과 다른 개체생명의 존재론적 관계는 무엇인가?

도에서 즐겁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인가? 즐거움이란 음양과 화합할 수 있음이니 무릇 일들이 소리 없이 이루어져 사람으로 하여금 도의 근본을 얻게 한다. 그러므로 원기가 즐거우면 삶이 크게 번창하니, 개체들이 자연스럽게 즐거우면 그 개체는 강해진다. 따라서 하나의 개체로서 하늘이 즐거우면 삼광이 밝아지고, 땅이 즐거우면 그 항상 됨이 있게 된다. 오행이 즐거우면 서로 상하게 하지 않고 사계절이 즐거우면 왕을 태어나게 하는 바가 되며, 왕이 즐거우면 천하에 폐단이 없게 된다. 따라서 사람들의 행동이 즐거우면 서로 해치고 상하게 할 것이 없으며, 만물이 즐거우면 그 항상 됨을 지키고 사람이 즐거우면 수고로이 마음과 장을 바꾸지 않으며 귀신이 곧 제왕을 이롭게 한다.<sup>37)</sup>

원기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는바 태양, 태음, 중화가 그것이다. 형체에 세 가지 이름이 있는바 하늘, 땅, 사람이 그것이다. 하늘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는바 해, 달, 별이 그것이며, 북극성이 중앙에 있다. 땅에는 세 가지 이름이 있는바 산, 냇물, 평지가 그것이다. 사람에게 세 가지 이름이 있는바 아버지, 어머니, 자

], 『철학탐구』 제19집, 2006년, 93쪽.

37) 『太平經』: “夫樂於道何爲者也。樂乃可和合陰陽，凡事默作也，使人得道本也。故元氣樂即生大昌，自然樂則物強，天樂即三光明，地樂則成有常，五行樂則不相傷，四時樂則所生王，王者樂則天下無病，其行樂則不相害傷，萬物樂則守其常，人樂則不愁易心腸，鬼神樂則利帝王。”

식이 그것이다. 다스림에 세 가지 이름이 있는바 군주, 신하, 백성이 그것이다. 이들 모두는 태평을 바란다. 이 셋은 항상 마음으로 복종하여 조금이라도 잃지 말아야 한다. 같은 것을 하나로 걱정하며 합하여 한 가족을 이루고 태평을 세워 수명을 늘리게 되니 의심할 것이 없다.<sup>38)</sup>

도교 세계관의 핵심관념은 원초적으로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 즉 자연과 인간이 이상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조화사상이다. 자연과 인간이 원초적으로 조화를 이루고 있었다는 것은 그것들이 근본적으로 하나의 원기로부터 생성된 것이기 때문이다. 현실세계의 다양하고 잡다한 사물들은 근원적으로 조화로운 원기에 의하여 생성된다. 원기가 조화롭다는 것은 곧 ‘천지자연의 본성’이다. 원기는 하늘과 땅, 인간을 포함한 모든 만물의 ‘할아버지’와 같다. 원초적 원기 상태를 보존한다는 것은 곧 도를 따르는 것이다. 이는 하늘과 땅,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만물의 즐거움이다. 세계 안의 모든 존재가 즐거움의 상태에 이르기 위해서는 모든 존재들이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 모든 존재의 즐거운 상태가 곧 도교의 궁극적 이상형인 太平이다. 태평은 인간사회 안에서 뿐 아니라 자연계 안에서, 그리고 인간과 자연 간의 화해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전 우주는 ‘가족과 같은’ 구성원들을 중심으로 조화를 이루는 ‘우주적 가족’이다.<sup>39)</sup>

이처럼 인간과 다른 개체생명은 모두 하나의 뿌리에서 나온 것이고 태평이라는 이상형을 실현하는데 각자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그 역할은 다른 개체생명의 이익과 필요에 따라 수행되는 것이 아니라 조화로운이라는 각 개체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수행되는 것이다. 즉 우주생명의 관점에서 모든 개체생명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런데 이 내재적 가치는 독자적으로 실현되는 것이 아니다. 각 개

38) 위의 책: “元氣有三名, 太陽, 太陰, 中和. 形體有三名, 天, 地, 仁. 天有三名, 日, 月, 星, 北極爲中也. 地有三名, 爲山, 天, 平土. 人有三名, 父, 母, 子. 治有三名, 君, 臣, 民. 欲太平也. 此三者常當腹心, 不失鐵分, 使同一憂, 合成一家, 立致太平, 延年不疑矣.”

39) 윤찬원, 『도교철학의 이해-태평경의 철학체계와 도교적 세계관』, 돌베개, 1998년, 131-135쪽.



체생명들 간의 조화를 통해서 실현된다. 말하자면 각 개체생명의 내재적 가치는 그 자체로만 의미를 갖는 것이 아니라 개체생명간의 관계에서 보다 근본적 의미를 갖는다. 도교는 이러한 조화로운 관계맺음의 주체로서 인간을 내세운다.

천지는 만물이 도둑질하는 바이고, 만물은 인간이 도둑질하는 바이고, 인간은 만물이 도둑질하는 바이다. 세 가지 도둑질이 도리에 맞게 잘 되면 세 사물은 서로 평안하다.<sup>40)</sup>

“천지는 만물이 도둑질하는 바이다.”는 만물이 천지음양의 기를 도둑질하여 생성된다는 것을 의미하고, “만물은 인간이 도둑질하는 바이다.”는 인간이 우주만물을 도둑질하고 이용하여 자신을 양육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은 만물이 도둑질하는 바이다.”는 두 가지 의미를 내포하는데, 하나는 인간이 만물을 도둑질하는 과정에서 만물에 의해 使役된다는 의미에서 만물이 인간을 도둑질한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만물을 도둑질하는 과정에서 만물을 改善하여 만물이 생명력을 잘 유지하게 해준다는 의미이다. 말하자면 만물이 인간의 지혜를 도둑질하여 자신을 영원히 보존하는 것이다. 이로 보면 만물은 천지를 도둑질하여 생성되고 인간은 만물을 도둑질하여 양육되고 만물은 인간을 도둑질하여 이루어진다. 이처럼 인간을 포함한 모든 개체생명은 相依相補, 彼此不可或缺적이고, 이는 대자연운행의 객관규율이다.<sup>41)</sup> 그러므로 인간은 만물을 도둑질하여 자신을 양육하는 과정에서 다른 도둑질이 마땅한 바를 얻는 것을 방해해서는 안 된다. 즉 인간이 자신의 내재적 가치 실현을 위해 자연을 이용할 수 있지만, 자연의 내재적 가치 실현을 방해해서는 안 되며 나아가 그 실현에 적극적으로 동참해야만 자신의 내재적 가치 실현이 가능하다.

40) 『黃帝陰符經』: “天地, 萬物之盜. 萬物, 人之盜. 人, 萬物之盜. 三盜既宜, 三才相安.”

41) 李衛朝, 「道教環境保護思想中的人本主義」, 『中國道教』, 2003.5, 21쪽.

이처럼 도교에서 자연이 인간의 내재적 가치 실현을 위한 도구로만 이용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내재적 가치를 갖고 있으며 인간을 포함한 우주생명의 내재적 가치 실현을 위해 인간에 의해 이용되는 것이지 인간의 이익과 필요를 위한 도구적 존재는 아니다. 그런데 여전히 문제는 남는다. 인간이 자연을 이용하는데 있어 도대체 어디까지가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는 것이고, 또한 자연의 내재적 가치 실현을 위한 인간의 활동이 어디까지가 개선이고 침해인가의 문제이다. 말하자면 우주생명의 조화실현으로서 인간의 개선활동은 언제 시작해야하고 멈춰야하는가의 문제이다. 도교는 자연계의 각종 생물이 인간의 생존을 방해하지 않는다면 인간은 그것과 화목하게 더불어 살아가라고 한다.<sup>42)</sup> 이는 자연계에 대한 인간의 개선활동이 자신의 생존을 위협할 때, 나아가 하나의 개체생명이 다른 개체생명의 생명을 위협할 때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면 그 활동은 어디에서 멈춰야 하는가? 노자는 인간의 개선활동이 “만물의 자연스러운 발전을 돕고 간여하지 않아야”(『도덕경』 제64장)한다고 하고, 그 활동은 생태평형을 지향해야 한다고 한다. “자연의 규율은 마치 활시위를 당기는 것과 같지 않겠는가? 활시위가 높으면 그것을 억누르고, 활시위가 낮으면 곧 그것을 들어 올리니, 남는 것은 덜고, 부족한 것은 보탠다. 자연의 규율은 남는 것을 덜어서 부족한 것을 보태는데 쓴다. 인간의 행위는 그렇지 않으니, 오히려 부족한 것을 약탈하여, 그것으로 남는 사람을 받든다.”(『도덕경』 제77장) 즉 생태평형이 무너졌을 때 평형을 회복하기 위해서 인간의 개선활동이 시작되고 평형이 회복되었을 때 그 활동을 멈춰야하지 인간의 가치취향에 따라 생태질서를 재편해서는 안 된다. 도교는 이러한 사상을 발전시켜 생물다양성보호로 생태평형유지를 구체적으로 표현한다.

42) 『地祇上將溫太保傳』: “野外一切飛禽走獸魚鱉蝦蟹, 不與人爭飲, 不與人爭食, 并不與人爭居. 隨天地之造化而生, 按四時之氣化而活, 皆有性命存焉. ……如無故張弓射之, 捕網取之, 是於無罪處尋罪, 無孽處造孽, 將來定有奇禍也. 戒之, 戒之.”

이른바 富足은 하나의 종도 결핍되지 않고 모든 종이 두루 갖춰져 있는 것이다. 上天은 만물이 모두 生長하는 것을 富足이라 간주한다. 그러므로 가장 盛명한 생명의 기운을 내려서 12000종의 동식물 어느 하나의 종도 生長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를 富足이라 일컫는다.<sup>43)</sup>

우주에서 인간이 귀와 눈으로 보고 듣는 모든 생물은 모두 皇天이 생겨나게 한 것이다. 황천이 그것들을 생겨나게 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생물들은 없다. 그러므로 각각 모두 神靈 主宰가 있고 생명이 歸屬하는 바가 있다. 예컨대 六畜의 생물은 인간에게 歸屬한다. 죽고 사는 것은 인간에게 달려 있을 뿐이다. 인간은 바로 六畜의 司命神이다. 12000종의 생물은 모두 천통과 지통을 품부하여 생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만약 어느 하나의 종이 존재하지 않는다면 천통이 부족한 바이다. 그러므로 만물로 하여금 서로 다스리고 복종하게 한다.<sup>44)</sup>

도교에서 우주가 부유하고 풍족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의 개체생명도 결핍되지 않고 다양한 개체생명이 모두 生長하는 것이다. 하나의 개체생명이 결핍되었다는 것은 우주생명이 그 내재적 가치를 전부 드러내지 못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우주생명의 가치실현을 위해 각 개체생명은 서로 협조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특히 인간은 우주생명의 가치실현 주체로서 그 역할을 능동적으로 실천해야 할 막중한 의무와 책임이 있다.

## V. 결 어

이상의 논의를 통해 도교 환경윤리의 내용과 의미를 살펴보았다. 도교는 모든 개체생명은 ‘도’에서 품부한 혹은 ‘도’와 동일한 불변의 본성으로

43) 『太平經』: “富之爲言者, 乃畢備足也. 天以凡物悉生出爲富足, 故上皇氣出, 萬二千物具生出, 名爲富足.”

44) 위의 책: “夫凡洞無極之表裏, 目所見耳所聞蠕動之屬, 悉天所生也. 天不生之, 無此也, 因而各自有神長, 命各屬焉. 比若六畜, 命屬人也, 死生但在人耳, 人卽是六畜之司命神也. 是萬二千物悉皆受天地統而行, 一物不具, 卽天統有不足者, 因使其更相治服也, 因復各使有尊卑君長, 故天道悉能相治制也.”

‘도성’을 갖는다. 모든 개체생명이 ‘도성’을 갖는다는 것은 인간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고유한 선 즉 내재적 가치를 갖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모든 개체생명은 도덕적 고려를 받을 만하며, 도덕행위자는 그 존재에 대한 의무를 갖는다. 즉 인간은 ‘자연존중’을 ‘궁극적인 도덕 태도’로 채택하여 자연환경에 대해 도덕적으로 책임 있는 방식으로 행위 해야 한다. 그런데 도교의 생명론은 인간에게 다른 개체생명보다 우월한 지위를 부여하고 인간을 우주만물 중 가장 존귀한 존재의 반열에 올려놓는다. 이러한 인간의 중요성은 인간만이 생명주체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설명된다. 그런데 인간의 생명주체성은 다른 개체생명과 관계에서 두 가지 상이한 의미를 내포한다. 하나는 인간이 다른 개체생명을 자신의 불로장생의 도구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인간이 우주생명의 내재적 가치 즉 각 개체생명간의 조화로움을 실현하는 주체가 된다는 것이다. 도교는 우주생명의 조화로움을 상위가치로 본다. 인간 자신의 내재적 가치의 실현은 우주생명의 조화로운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한에서만, 그리고 다른 개체생명의 내재적 가치의 실현이 침해되지 않을 때만이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다.

논자는 앞에서 테일러의 생명중심윤리이론을 설명하면서 그것이 갖는 몇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였다. 그 문제의 핵심은 인간과 자연을 분리할 수 있는 것이며, 자연적인 것은 모두 윤리적용의 범위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인가이다. 도교의 생명론은 인간과 자연을 우주생명의 중요한 구성요소로 보고 어느 한 쪽의 결핍도 허용하지 않는다. 나아가 양자가 상호의존하고 견제하며 우주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실현해야 한다. 따라서 인간을 포함한 각 개체생명의 활동이 자신의 내재적 가치 실현을 위한 자연적 현상이더라도 다른 개체생명을 침해하고 나아가 우주생명의 조화로운 질서를 무너뜨린다면 타자에 의해 제어되고 조절되어야 한다. 도교는 이러한 제어와 조절의 주체로서 인간을 내세운다. 인간은 자신의 내재적 가치 실현과 자연의 조화로운 발전 즉 우주생명의 내재적 가치 실현이라는 이중의 도덕적 책임을 갖고 있는 우주생명의 지킴이이다.

정리하자면 도교의 생명론은 인간의 가치평가와 무관하게 자연의 내재적 가치를 인정하기 때문에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듯 보이지만 우주생명의 일원으로 인간과 자연의 공동목표를 지향하는 동반자로 본다. 특히 인간의 자연에 대한 간섭활동은 중요하다. 그리고 인간과 자연이 생태질서의 혼란을 초래한다면 그것이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이라 하더라도 우주생명의 내재적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기 때문에 윤리적 의미를 부여한다.

논자의 도교 환경윤리에 대한 이러한 견해는 김승혜가 「神仙世界: 도교 환경윤리의 기초」에서 주장하는 내용과 일맥상통하다. 그는 도교 만다라인 도홍경의 『眞靈位業圖』와 전진교의 공식적 기도서인 『太上玄門朝晚檀功過經』을 분석하여 도교 환경윤리의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원칙을 제시한다. 첫째, 도교 환경윤리는 몇몇 현대 심층생태학자들이 추측한 것처럼 생명중심적 생태학의 진영이나 인간중심적 생태학의 진영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둘째, 인간과 자연 세계 간에 감응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대표하는 도사들은 우주전체에 특별한 도덕적 책임을 지닌다. 셋째, 도교의 중심 상징인 신선세계는 모든 생명체가 도와 영원한 삶을 누리게 되어있다는 비전을 제공함으로써 환경 윤리의 폭을 온 우주로 넓힐 뿐 아니라 도라는 생명의 근거에 기초한 윤리적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면서 그는 “도교는 비와 물과 하늘과 땅이 우리의 스승이기 때문에 자연 세계를 존중하라고 가르친다. 도의 원기에서 흘러 온 같은 생기를 공유하고 오염된 사악한 기 아래에서 함께 고통 받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돌보라고 가르친다. 한마디로 인간과 자연세계는 도의 지극히 복된 세계를 향한 정화 과정을 함께 걷는 동반자이며 친족 관계이다. 인간 존재가 도의 잘 짜진 망에서 단순히 응하기만 할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조화를 유지하도록 도와야할 책임도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 도교의 신념이다. 그러므로 인간이 더욱 자연스럽고 자비롭게 될 때, 온 우주는 스스로 바르게 되고(自正), 스스로 풍부해지고(自富), 스스로 피어날(自化) 것이다.”고 한다.<sup>45)</sup>

일반적으로 도교의 환경윤리를 생명중심주의라고 한다. 그런데 이상의 논의에서 알 수 있듯 도교가 우주생명의 가치 실현에서 인간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존재의 선과 생명의 목적론적 중심이라는 측면에서 인간과 다른 생명체를 동등하게 취급하는 생명중심주의로 도교의 환경윤리를 온전히 설명하기 어려워 보인다. 최근 기독교학계에서 환경문제의 대안으로 생명주권과 하나님의 형상의 독특성 그리고 책임의 측면에서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는 생명주권주의(biocracy)를 주장한다. 이는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해석되어왔던 창조신앙에 대한 새로운 해석과 수정을 통해 하나님 중심적인 관점으로 생명과 자연생태계를 이해하면서 인간의 책임을 강조한다. 따라서 생명주권주의는 창조주와 인간의 올바른 관계성을 중시하며, 인간은 하나님과 다른 생명체와의 관계에서 책임적 존재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sup>46)</sup>

이러한 다른 개체생명에 대한 인간의 도덕적 책임을 강조하는 생명주권주의는 도교의 생명중심주의 이론과 유사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생명주권주의에서 생명의 주권은 창조주에 있고 모든 피조물은 그 자체로 가치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에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인간은 다른 생명체와 달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었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대리하여 하나님의 뜻인 창조와 정의, 그리고 사랑을 모든 피조세계에 펼칠 책임이 있다. 즉 인간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로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자연과 생태계의 생명체를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그런데 도교에서는 無爲自然적 도에서 생성된 모든 개체생명은 스스로 自生自化하며 그 자체로서 가치를 지닌다. 따라서 각 개체생명은 도와의 관계성에서가 아니라 개체생명들 간의 관계성 안에서 가치를 지닌다. 또한 인간은 도의 대리인으로서가

45) 김승혜, 「神仙世界: 도교 환경윤리의 기초」, 『도교문화연구』 제22집, 2005년 4월, 253-276쪽.

46) 생명주권주의에 관해 이종원의 「환경윤리에 대한 대안적 접근: 생명중심주의에서 생명주권주의의로」(『철학탐구』 제19집, 2006년, 100-105쪽) 참조.

아니라 우주생명의 일원으로서 우주생명을 보호할 의무와 책임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논자는 도교의 환경윤리를 생명주체주의(bioautonomous)로 보고자 한다. 도교에서 인간은 다른 개체생명과 달리 자주적이며 자발적이며 자율적(我命在我)이다. 이러한 주체성에 근거해 도교는 우주생명의 조화 실현에 대한 인간의 의무와 책임을 강조한다. 이 의무와 책임은 도로부터 부여된 것도 도의 청기기로서가 아닌 우주생명의 일원으로서 우주생명의 조화 실현을 위한 주체적 실천이다. 즉 동반자이며 가족인 다른 개체생명의 가치실현을 위한 인간의 주체적 의무이며 책임일 뿐이다.

※ 이 논문은 2010년 1월 23일에 투고되어, 2010년 2월 24일에 편집위원회에서 ‘특별논문’으로 선정하고, 2010년 3월 13일에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결정되었음.

<참고 문헌>

- 『道德經』, 『莊子』, 『太平經』, 『抱朴子』, 『養性延命錄』, 『西昇經集注』  
『黃帝陰符經』, 『道教義樞』, 『化書』, 『地祇上將溫太保傳』  
『太上感應篇』, 『太上老君內觀經』, 『老君說一百八十戒』  
윤찬원, 『도교철학의 이해-태평경의 철학체계와 도교적 세계관』, 돌베개,  
1998년.
- J.R. 데자르댕, 김명식 옮김, 『환경윤리』, 자작나무, 1999년.
- 정재서, 『도교와 문학 그리고 상상력』, 푸른숲, 2002년.
- 김승혜 등, 『도교와 그리스도교』, 바오르딸, 2003년.
- 이원국, 김낙필 외 옮김, 『내단: 심신수련의 역사1』, 성균관대학교출판부,  
2006년.
- 李衛朝, 「道教環境保護思想中的人本主義」, 『中國道教』, 2003.5.
- 樊光春, 「宮觀生態學」, 『宗教學研究』, 2005년제3기.
- 毛麗嫻, 「道教生命觀與自然環境」, 『西南民族大學學報』(人文社科版), 2008/8  
제204기.
- 김승혜, 「神仙世界: 도교 환경윤리의 기초」, 『도교문화연구』 제22집, 2005  
년 4월.
- 이종원, 「환경윤리에 대한 대안적 접근-생명중심주의에서 생명주권주의에  
로」, 『철학탐구』 제19집, 2006년.
- 김태용, 「도교의 생명윤리」, 『도교문화연구』 제28집, 2008년 4월.



## Abstract

*Bioautonomous environmental ethics of Taoism / Kim, Tae-yong*

This is about studying on the environmental ethics of Taoism mainly based on Taoism's Bioautonomous. Taoism is the most comprehensive thought in the traditional thoughts of East Asia. According to Taoism, every individual bio has its own intrinsic value having nothing to do with the value estimated by human beings since it has Daoxing. Human beings, however, have their own bioautonomous which is different from other individual bio. In Taoism human beings are independent for their lives. They do not depend on nature, but they can control themselves. That is to say, their lives depend not on god but on their own wills. The human beings' bioautonomous includes two different meanings: one is that human beings can use other individual bio as a tool for their eternal youth, and the other is that human beings are the main character of realizing the intrinsic value of universal bio and bringing harmony into each individual bio. In Taoism the harmony of universal bio is considered as the top value. Realizing the value of human beings is based on keeping harmonious order of universal bio and realizing the value of other individual bio. the environmental ethics of Taoism is not Biocentrism. Biocentrism argues that each individual bio has teleological center of life, which pursues its own good in its own way, and possesses equal members of Earth's community. As a result, human beings role and responsibility was reduced. But Taoism insists on human beings' bioautonomous. And human beings should be responsible for universal bio's harmony. Therefore the environmental ethics of Taoism is not Biocentrism but Bioautonomous. Bioautonomous environmental ethics of Taoism insists on human beings should be responsible being in relation with other living beings. Because of this point, it can be a theory of biorecovery.

Key words: taoism, environmental ethics, biocentrism, intrinsic value, individual bio, universal bio, bioautonomous.